

다시보는
로타리코리아
記事

【제5차 375地區年次總會 致辭】 - 朴正熙 大統領

1965. 送年호(통권 13호)



1965年 10月 9日
로타리·클럽 第5次 年次大會

▶特輯 / 第5次年次總會◀

致 辭

深愛하는 로타리 會員 여러분,
그리고 內外貴賓 여러분,
오늘 이곳 嶺南의 雄都 大邱에서 韓國地區 로타리 第5次 年次大會를 開催함에 즈음하여,
나는 여러분과 더불어 로타리의 崇高한 理想과 精神을 되새기고 앞으로의 보다 큰 發展을 세모이 다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돌이켜 볼 때, 1905年 2月, 美國의 「시카고」市에서 젊은 韓護士 「클·패리스」氏의 主導下에 처음으로 로타리가 創立된지도 於茲 60周年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로타리 活動은 奉仕와 友愛의 根本理想에 立脚하여 民族과 政治와 宗教를 超越한 全世界的인 運動으로 發展을 거듭하였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1백29箇國에 걸쳐 1만2천5백餘 클럽과 58萬餘名의 會員을 가진 甚大한 組織을 이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나라의 境遇는, 1927년에 처음으로 <서울 로타리 클럽>이 發足된 後, 꾸준한 發展을 보여오다가, 1960年 7月1日에는 <國際로타리 375地區>로 正式 加盟을 보게 되었고, 現在는 全國에 걸쳐 26個 클럽과 1천5백餘 會員을 가진 着實한 奉仕團體로서 活動하고 있습니다.
로타리가 이와같이 國境이나 階層을 超越하여 크나큰 發展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會員 여러분들이 奉仕의 理想을 生活의 信條로 삼아 獻身해 왔던 보람있는 結實인 것이며, 나는 이 자리를 빌어 甚深한 致賀의 뜻을 表하고자 합니다.
國際親善과 地域社會 開發에 이바지한 로타리의 業績은 至大한 것이었고, 로타리 活動에 對한 우리의 期待는 날이 갈수록 커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타리 會員 여러분들은 經濟·社會·文化·政治 等 各界 各層을 代表하는 指導的인 位置에 있는 人士들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이 各分野에서 큰 影響力을 미치고 있는 重鎮들이기도 합니다.
有力하고도 著名한 人士들이 社會奉仕라는 次元 높은 精神으로 相扶相助한

다는 이 점이 바로 로타리의 特殊性인 것이며, 이것은 로타리만이 가지는 強力한 힘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타리의 活動에 至大한 關心과 期待를 걸고 있는 所以도, 또한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社會에는 로타리의 精神인 <自我를 超越한 奉仕>를 要求하고 있는 課題들이 山積해 있습니다.
貧困과 疾病을 退治하는 일이 그것이고, 教育과 文化를 振興시켜 나가는 일이 그것이며, 科學과 技術을 發展시켜야 하는 일이 또한 그것입니다.
編成社會을 建設하기 爲한 이와 같은 一切의 努力은, 무엇보다도 協同과 奉仕의 精神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로타리의 精神은 오늘을 開拓해 나가는 우리 國民의 精神과도 直結되고 있는 것입니다.
로타리 會員 여러분들이 우리 社會에 奉仕의 精神을 널리 播種하고 實踐과 行動으로 垂範한다면, 不遠 그 結實로서 希望한 새 社會가 建設될 수 있을 것으로 나는 確信하는 바입니다. 單純한 親睦團體로 그칠 것이 아니고, 社會의 구석구석마다 希望의 씨를 뿌리면서 理解와 協同의 氣風을 振作하여 開發해 나아가는 그곳에 로타리의 참다운 使命이 있다는 것을 銘心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社會開發의 先頭에 나서 일하는 로타리의 모습을 보고 聲援과 協助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여기에 로타리와 더불어 成長하는 이 나라의 앞날을 約束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뜻깊은 大會가 會員 여러분의 새로운 奮發의 契機가 되고, 로타리의 發展과 더불어 이 나라의 永遠無窮한 發展으로 直結되는 契機가 되기를 祝願하는 바입니다.

1965年 10月 9日

大 統 領 朴 正 熙

1965년 10월 9일 로타리·클럽 第5次 年次大會

다시보는
로타리코리아
記事

〔로타리 文苑〕 로타리 雜談- 白完基 光州RC 總務

1966~67년호(통권 14호)

로 타 리 雜 談

白 完 基

A

Rotary Korea誌를 自畫自讚해 본다. 13號를 보고 印象 나는데로 적어 본다. 또 이 기회에 希望의인 건지도 떠올라 한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機關誌>치고는 一流級에 속한다고 自負할만하다. 이번 13號를 두고 보아도 印刷며 紙質이며 校正· 편집· 편집감각이 주된했다. 廣告 하나에도 細心한 注意를 썼고, 寫眞版所謂 편집 瓦리쓰게란 계획이 專門家의 손을 빌릴 것 같은 인상을 준다.

地區 總裁님들이 1年間에 달아서 奉仕的인 일을 많이 하는데 이 장제 刊行에 있어서는 疲勞차이 큰 일일줄 믿는다. 슬으면 글쓰기가 싫어지고 原稿를 모아 장제로 만들어 내는다는 경험 없는 분은 그 苦痛을 잘 모를 것이다. 그렇지만 各總裁님들은 적어도 10년쯤가서 自己 在任時의 遺憾을 되살려 볼때 그 治願으로 남는 것은 이 Rotary Korea 誌뿐일 것이다. 그러기에 아무튼 힘든 일이지만 아름답게 충실의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안되겠다. 豪華版으로 만들어 내는다는 要件이 있다. 지금 時期에서 1部代 百圓 정도로 1部에 百페이지 기준에서 만들어 내야 한다.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면 좋은 물건이 나올줄 믿으나 이런 한계를 지키면서 멋진 장제를 만들어 내야 의의있는 일이다.

前·後 半期로 2回씩은 것을 原則으로하되 形便에 따라서 1회로 하는 분도 있다. 지금까지는 大體1회로써 그쳤는데 金總裁님은 2회를 낸다고 하니 그 熱熱的인 精力에 감탄했다. 기관지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편집 傾向은 自己 P.R이나 自己예를 자랑 소개를 하고 만다. 무미건조하다. 아무리 진수성찬도 없이 없으면 서운하듯이 무슨 일을 거리가 없으면 슬픈 심정함을 느껴져 진다는 말이다. 그러니 週報에서 週刊만

은 各名士님들이 하라못해 재미있는 隨筆이라도 실어서 暇취주기를 바랄뿐이다. 대개 紀行文, 體驗記, 身邊隨筆은 곧 人格的인 薰薰한 獨후감을 주기 마련이다.

B

로타리 클럽 例會에서는 지도록이면 유모어, 7트 있는 말로 분위기를 明朗하게 조성시키는 기술이 必要하다. 현대, 그것이 그렇게 용이할 노릇이 아니다. 그건 그렇구.....

우리 Rotary 주변에서 이런 감탄을 간혹 듣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박 잘라서 말하자면 紳士적이고 肅穆한 말이 못된다. 웃겨주는 셈치고... 아니 사실말이지 그런 底蘊가 各클럽에 전혀 없는 것도 아닌실 싶다. 우스꽝스러운 너우리를 읽어보자.

X X X

날 좀 꼭 클럽에 넣어 달라니까, 그래야 나도 支店長님들도 만나보고, 團長님도, 市長님도 또 무슨 社長님들과도 친구가 될 수 있고, 그게 어 때서 꼭 들어가고 싶으니 추천해 달라는데 그렇더우나? 친구 좋다는 게 다 이럴때 하는 말이 더 자책은 너무 한다니까!.....

X X X

숙자얼마! 오늘은 내가 점심값을 지불하니 내청을 들어주지, 그대 우리는 同窓生이요 같은 契군인데 듣자니 자네서방님은 로타리클럽에 들어가서 오 며칠전 밤에 자네와 동부인 회사 파티에 나가고 좀까지 추고 왔더니 자네 혼자만 재미볼 랐인가? 우리집 아가 아빠는 꾸어다 놓은 보리자루 처럼 고계속이 부추려서..... 자네집 서방님께 말해서 들어가도록 치마바람 휘력을 쫓 내 보게.....

이봐! 난 말이지 로타리 클럽에 들어가면 무슨 수나 있나 했지, 그런데 기껏 피비나 내고 점심이나 먹고 갈리는.....거북하고 모두 되치 하거만 하고 서먹서먹해서 전될 수가 없어..... 야에 더 있어볼 생각이 없군그래! 빠져도 벗지 만 차고 다니면 될것.....

X X X

여보! 오늘은 클럽에 가서 점심 잡수시지요, 아니야.....金社長님이 불고기에 술까지 샅다 니 그 곳으로 가야지, 흥 수렴하고 세수하고 베타이 차기가 싫어서 그 달이군요, 당신은 수지 맞은 곳만 가거든, 그럴 난 기쁨과 먼저 속에서 살아온 위인이라 그런 형식이나 사치는 싫다 그런 말이야, 그럴 빠져버리지 왜 야단이고, 그야 사람 구실을 할라니 그대로 두고 있지.....

C

Osaka 클럽에서 Banner와 10年間의 年誌史를 冊으로 만들어진 것을 보내왔기에 읽어본 중에 두가지 감명 깊은 것을 느꼈었다.

그 하나는 出席率에 대한 이야기다. 百七〇名에 92%로 가장 高齡이신 모 큰 會社의 社長(大 概에서는 自他가 가장 바쁘다고 認定받는 財閥 이신)의 出席率에 무슨 秘訣이라도 있느냐? 고 記者가 물었는데 『우리 로타리안들은 가장 바쁜 사람들이다. 한가한 사람은 로타리안 자격이 없 오, 나는 例會에 나가는 것을 <道場>에 가는 각 오로 나갑니다.』 日本사람들이 도장에 가는 심정을 理解 못한다면 이해 하기 곤란하다. 信仰 같은 비장한 각오 그런 날이 몇 보인다. 宗教人 이 主日날 敎會에 가는 결심이 例會에 나가는 마음이나 같다는 말이다. 우리 주변에서는 난 바빠서 요절에는 결석 했어, 이런 바보같은 말 들을 듣잖 한다. 그대 자기만 바쁘고 出席한 會員은 안 바쁘단 말인가? 같은 말이면 구체적으로 病席, 出張갔다고 말 할 일이지 바빠서 못 나갔다고 하면 그 변명스런 얼굴을 한번 쳐 쳐 다 보고 싶은 충동이 설레곤 한다.

또 한가지.....Table Speech인데 15分間만 (世界慣例가 그러하다). Guest Speaker 님에는 雜語로 15분에 끝 내시라. ... 타임워치가 달려있어

15분에 소리가 나면 中途라도 웃고 그만문다는 이야기다. 例會를 1時間에 끝내야하는 프로그램 配定에 1分도 여유가 없다. 이것은 무엇을 말 하고 있을까? 꼭 時間을 지키는 社會的 訓練이다. 國際的 社會生活에 있어서 지켜나갈 知性人 들의 에티켓이다. 그런 意味에서 로타리 클럽은 이면 社會 訓練道場같은 모임으로 인식 해도 좋다. 이런 例가 있다. 20분만 이야기 해 주라는 請이 있었는데 모 기관장은 마치 自己 部下들에게 말하듯이 1時間을 延長했다. 도중에 그만 두 라고 하자니 그렇구 참고 견디자니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팔로 輪화동이 버릴 것 같았다. 이런 것은 主素에 혼란이 뜻된 탓이다. 外國 사람들은 꼭꼭 지진다. 만일 3분이라도 미리 양해를 얻어서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었다. 한번 누구 나 생각해 볼 일이다.

國際的인 共同運命體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知性이 이런 적은일 부터 訓練되어 있어야 한다. 로타리안들은 指導的役割을 地域社會에서 앞장 서야 한다.

이런 雜談도 때로는 眞實을 말 해 줄수도 있다.

(光州 로타리 클럽 總務)



대한민국 40년 1948년 10월 2일

다시보는
추억의
봉사활동

〔로타리 探訪〕 - 大邱지역 3개 클럽 봉사활동

仁川RC 봉사활동

1966~67년호(통권 14호)

로타리코리아 창간 1963년 10월 ~ 1980년 12월

Dedication for Homeless Families 로타리 마을 入住式

12月17日 在邱 3 클럽 主催

지난해 10月初旬부터 在邱3클럽이 着工하기 始作한 反共 青年 罹災民 45世帯에 住宅을 마련해 줄 自助住宅은 10月 13日 起工式을 올린後 다시 道廳道路撤去民 30世帯를 追加해서 45棟의 自助住宅의 竣工을 보고 이 入住式이 盛大히 舉行되었다.

韓美財團團長 Robert G. Lowe氏를 비롯 地區總裁 金永韶博士, 南鳳振副知事, 金剛市長, KMAG Goodman 大領 外 内外貴賓多數와 大邱, 東大邱, 南大邱 로타리 클럽 會長團, 會員, 入住者 家族等 約200名이 參席한 가운데 盛大히 舉行되고 3時 30分新 住宅 入住式을 끝음으로서 式은 終了 되었다.

韓美財團에서는 이 住宅建立에 勞苦가 많았던 地區總裁와 로타리 클럽 會長에게 感謝狀을 授與하고 또 地區에서는 總裁名義로 美國地區 및 韓美財團團長 Lowe氏에게 感謝狀과 紀念品(螺 紋洗器 磁器)을 贈呈하고 또 入住者代表 中에서도 이번 自助 住宅計劃 推進에 功勞가 큰 박 성수, 김병선, 방동기 3氏에게 表彰狀을 授與 했다.



<로타리 마을 전경>



<로타리 마을 入住式에서

땀을 흘리고 있다>



仁川 로타리 클럽의 어제와 오늘

로타리 探訪



— <사 진 설 명>

仁川 로타리 클럽이 세운 「사랑의 종」이 밤10시를 알 리면 청소년들의 발걸음은 모두 집으로 향한다.

인천「로타리 클럽」은 1957년 1월 27일에 첫번째회를 갖고 그해 3월25일 에 국제「로타리 클럽」본부로부터 인준을 받아 클럽 활동을 시작, 4·19학 생의거 이후 정국이 혼란한 2년쯤 잠시 중단되었다가 5·16혁명후 정상화 하여 본회의의 목적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인천시대 각 직종(職種)을 대표하는 37명의 회원이 매주 수요일 정례회 합을 갖고 지역 사회를 위한 활동의 하나로 성금을 거두어 장학 기금을 마련, 훌륭한 학생을 돕고 있다.

지난해 회원들의 회사금 50만원을 들며 밤길에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 년의 조기(早期)귀가를 알리는 「사랑의 종」 탑을 자유공원에 세워 놓기도 했다.

창설 9주년을 맞이한 인천「로타리 클럽」은 올해 국제「로타리 클럽」의 10대 목표를 「모토」로 더 많은 회원을 가입케 하여 인천의 발전을 위해 보람있는 사업을 꾸준히 할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시보는
추억의
奉仕活動

〔로타리 探訪〕- 金泉·春川·順天RC 활동 1968. 12월호(통권 19호)

375·376 地區 각클럽 봉사활동

1970. 12월호(통권 27호)

리타리코리아 창간 100년 1963년 10월 ~ 1980년 12월



◀ 1968년 6월 市内 交通安全 標識臺 2臺 設置 - 金泉RC



▶ 無醫面 無料 診療奉仕 - 春川 RC(年例事業)

1968년 5월 12일
春川郡 北山面 內坪里 所在 面事務所에서 延患者(연환자) 400명을 진료함



◀ 極甚한 旱害民(한해민) 部落을 찾아서 라면 700포 전달- 順天RC

375·376地區
各클럽의 事業活動



◀ 韓國孤兒의 入養事業을 받고 있는 '善友養子會'의 孤兒들에게 價値어 40,000圓 相當의 金類을 寄贈하였다 (서울 R.C.)



◀ 創立 43周年 紀念式을 타워호텔 禮堂에서 盛大히 舉行하였다 (11月 11日 서울 R.C.)



◀ 姉妹結緣 歸來인 湖山驛區 머천리驛에 사은 素 안 마라톤 4마리를 寄贈하였다 (北湖山 R.C.)